

Table of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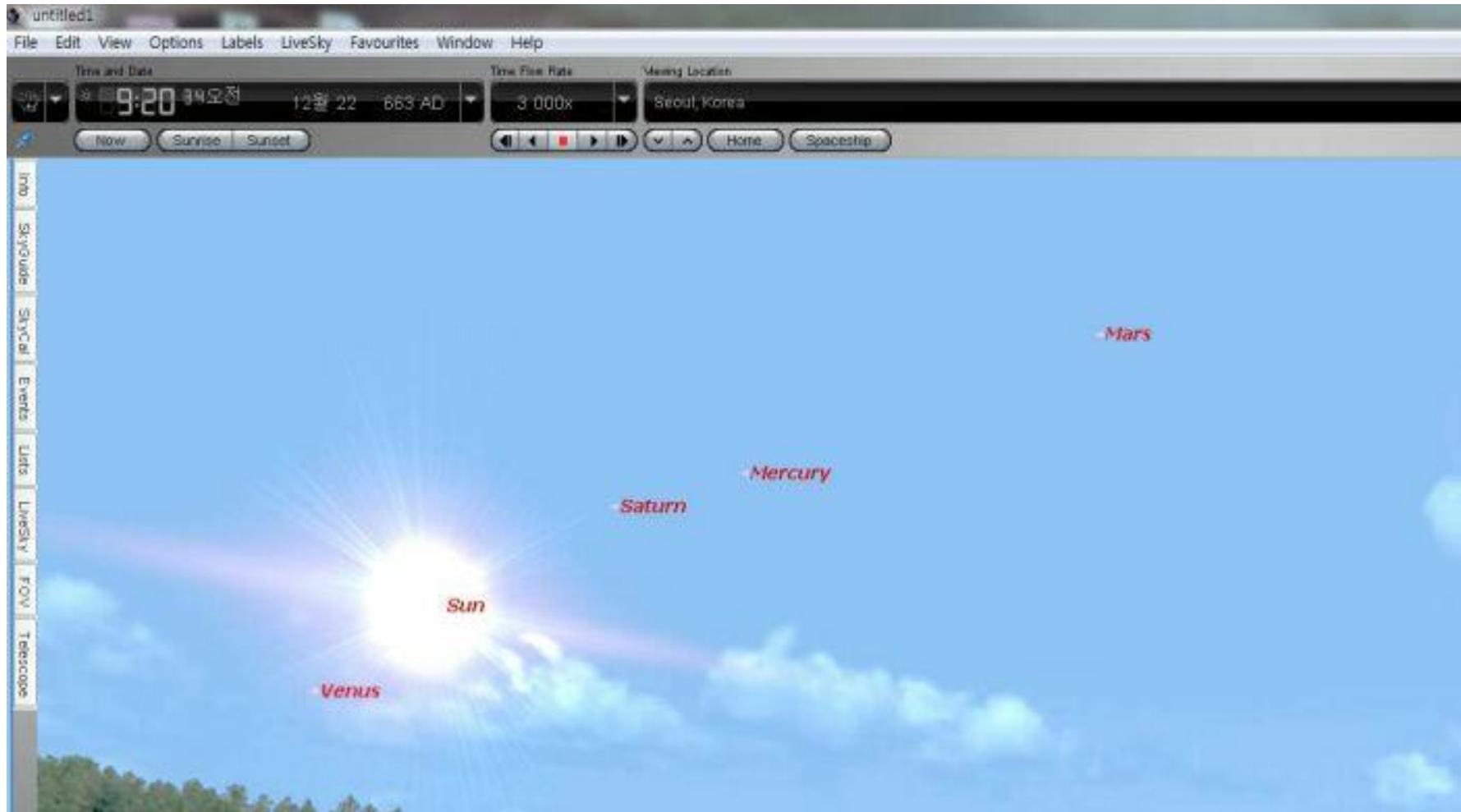
I. 삼기능체계로서의 동양천문학

II. 동아시아 삼기능체계의 변천

III. 동양 천문학에서 663년의 의미

IV. 663년 백촌강 전투의 삼기능체계로서의
의의

663년 동지는 60갑자의 시원의 날짜로 비정됨



박용규, 입체오행중에서,

663년 동지는 60갑자의 시원의 날짜로 비정됨

甲子時가 되는 자시(子時)는 한밤중으로 우리나라 서울의 반대편에 위치하여 볼 수가 없으므로 AD663년 12월 22일 09시 20분을 기준으로 그 당시 서울의 북동 북에 나타난 현상의 시뮬레이션 영상이다. 실제로는 태양빛으로 보기가 어려우나 실제의 위치를 표기한 것이다. 여기서 北東北에 사성(四星; 金星=venus, 土星=saturn, 水星=mercury, 火星=mars)은 보이나 木星인 Jupiter가 보이지 않는 것은 木星은 地球의 東쪽에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癸亥年, 甲子月, 甲子日의 干支는 水水年, 木水月, 木水日이고 방향으로는 北北, 東北, 東北이니 4北2東(지구를 포함)이 성립하므로 태어난 각지의 干支(干支)를 해석해 보면 체질을 알 수 있다. 는 것이 증명된다. (여기서의 방향은 천구를 기준하지 않고 지구를 기준하므로 결코 1직선으로 되는 일은 없으나 지구의 북동쪽에서 직선처럼 보인다는 의미이다.)

박용규, 입체오행중에서,